

아이오닉 일렉트릭 자율주행차, 미래를 제시하다

〈현대자동차〉

‘LA 오토쇼’ 주목할 만한 신차

현대차 완전 자율주행 ‘레벨4’ 만족
재규어 브랜드 SUV 전기차 선택
포르쉐 330마력 최상위 모델 공개

18~27일 미국 LA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되는 ‘2016 LA 오토쇼’에서 주목할 만한 신차를 살펴봤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일렉트릭 자율주행차를 통해 완전 자율주행을 의미하는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선보이며 기술력을 과시했다. 재규어는 브랜드 최초의 전기 SUV를, 포르쉐는 브랜드 최상의 라인업인 파나메라 이그제큐티브를 공개하며 브랜드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했다.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자율주행차

현대자동차는 ‘2016 LA 오토쇼’에서 아이오닉 일렉트릭 자율주행차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아이오닉 일렉트릭 자율주행차는 전기차 기반의 완전 자율주행 컨셉트카로 미국자동차공학회(SAE·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의 자율주행 기준 레벨 4를 만족시켰다.

아이오닉 일렉트릭 자율주행차는 ‘자율주행을 최대한 간단하게 구현한다’라는 취지 아래 개발됐다. 기존 양산차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ASCC)의 전면 레이더와 주행 조향 보조 시스템(LKA S)의 카메라 등을 라이더(LIDAR·레이저 레이더) 기술과 결합해 아이오닉 일렉트릭 자율주행차를 개발했다.

아이오닉 일렉트릭 자율주행차는 라이다 시스템을 비롯해 차량에 장착된 다른 기술들을 통해 차량의 정확한 위치와 주변 차량, 사물을 감지할 수 있어 차량의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다.

●재규어, 전기차 I-PACE

재규어 I-PACE 콘셉트는 단순한 모티쇼용 콘셉트카가 아니라 새로운 재규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퍼포먼스 SUV 전기차다. 스포츠카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에 강력한 주행 성능은 물론 5인승 SUV로서 실용성까지 겸비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재규어 I-PACE 콘셉트에 탑재된 전 기모터는 최고출력 400마력, 최대토크 71.4kg·m(700Nm), 4초대 제로백(0-60mph)의 퍼포먼스를 자랑한다. 90kWh 배터리를 통해 1회 충전 만에

500km(NEDC 기준)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 재규어 I-PACE 콘셉트는 운전자 중심의 퍼포먼스와 일상생활 주행을 동시에 충족해 완전히 새로운 전기차 주행 경험을 선사한다.

디자인 역시 매력적이다. 재규어 디자인팀은 C-X75 콘셉트에서 영감을 받은 유려한 쿨패형 실루엣을 I-PACE 콘셉트에 보다 완벽히 구현했다. 실내는 5인승 SUV답게 개방성과 실용성을 확보했다. 여기에 최고급 전기차를 향한 재규어의 방향성을 대변하듯 첨단 테크놀로지와 전통적인 프리미엄 소재가 조화를 이룬다.

한편, 재규어 랜드로버는 I-PACE 콘셉트 공개와 함께 청정미래 구현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클린 디젤 및 가솔린 엔진뿐만 아니라 전기차(B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마일드 하이브리드(MHEV) 등 모든 파워트레인에 걸쳐 깨끗한 미래를 위한 전략적 접근 중에 있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신차의 절반 이상을 전기차 옵션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I-PACE 콘셉트의 양산 모델은 2017년 공개 후, 2018년 공식 출시될 예정이다.

●포르쉐, 파나메라 이그제큐티브

포르쉐는 LA 오토쇼를 통해 330마력의 신형 V8 싱글 터보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최상위 모델 이그제큐티브(Executive)를 공개한다. 포르쉐가 선보인 신형 V8 싱글 터보 엔진은 뛰어난 효율과 민첩성을 겸비한 엔트리 레벨의 신형 엔진이다. 파나메라, 파나메라 4, 그리고 롱 휠베이스 버전인 파나메라 4 이그제큐티브(일부모델)에 탑재된다.

신형 엔진은 기존 1세대 파나메라 대비 20마력 증가한 330마력의 출력과 100km당 1리터 감소한 연비를 갖췄다.

또한 포르쉐는 150mm 더 길어진 휠베이스와 최고급 옵션 사양을 갖춘 이그제큐티브 모델을 통해 파나메라 최상위 라인업을 완성시켰다. 파나메라 이그제큐티브 모델은 파나메라 4 이그제큐티브(330마력/V6 싱글터보), 파나메라 4 E-하이브리드 이그제큐티브(462마력/V6 하이터보), 파나메라 4S 이그제큐티브(440마력/V6 하이터보) 그리고 파나메라 터보 이그제큐티브(550마력/V8 하이터보)의 4가지로 출시된다.

신형 포르쉐 파나메라 이그제큐티브에는 대형 파노라믹 루프,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를 포함한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추가 기본 사양으로 적용된다. 국내에는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자율주행차.



▲재규어 전기차 I-PACE.



▲포르쉐 파나메라 이그제큐티브.



▲QM3 에투알 화이트.

별을 품은 QM3 에투알 화이트 출시

11월 최고 250만원 할인

르노삼성자동차는 20일 QM3 에투알 화이트(Etoile White) 판매팀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에투알은 별 혹은 인기스타를 뜻하는 프랑스어다. QM3 에투알 화이트는 의미 그대로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펄 화이트 바디에 매끈한 블랙 루프가 조화를 이룬 모델이다. 차량 앞뒤에 실버 스키드로 포인트를 더했고, 실내에는 블루 메쉬드 포인트 콕핏 시트와 블루 포인트의 크롬 프로스트로 인테리어를 완성했다.

QM3 최고급 트림 ‘RE 시그니처’의 세 번째 모델인 에투알 화이트는 고급형 룸·맵 램프, 알루미늄 페달, 선바이저 조명, 선글라스 케이스가 포함된 프리미엄 팩과 전자기 토크리(ECM) 등 다양한 고급 사양을 갖추고 있다. 가격은 RE 시그니처 가격 대비 40만원 낮은 2440만원이다.

이번 에투알 화이트 출시로 선택 가능한 QM3의 컬러 조합은 모두 11가지로 늘어났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칸느 블루, 소닉 레드 등 유려피인 감성의 유채색 계열에 더해 클래식하면서도 세련된 무채색을 지닌 에투알 화이트가 추가됨에 따라 QM3 수요의 저변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QM3는 지난 10월, 전 달에 비해 2배 가량 판매가 늘어난 2104대가 판매되면서 소형 SUV 시장에서 니로를 제치고 판매 2위로 부상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QM3 판매 확대를 위해 11월부터 조건에 따라 최고 250만원까지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금융



▲현대카드 ‘유지 라이브러리’ 내부 전경.



▲신한카드 ‘판스퀘어’ 드림홀 입구.

사진제공 | 신한카드

놀이·휴식으로 브랜드 알리기…카드사 ‘공간 마케팅’

현대, 디자인·여행·뮤직 공간 마련
신한, 판스퀘어 복합문화공간 개관

‘공간을 활용하라!’
카드사에 떨어진 특별 미션이다. 테마를 지닌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고객에게 어필함이 주요 골자다. 이른바 ‘공간 마케팅’이다.

선두주자는 현대카드다. 지난 2014년 ‘디자인 라이브러리’(서울 북

촌), 지난해 여행 관련 서적 1만4700여권을 소장한 ‘트래블 라이브러리’(서울 청담동), 합주실 및 공연장을 갖춘 ‘뮤직 라이브러리’(서울 이태원)를 열었다. 최근에는 뮤직 라이브러리 인근에 ‘바이닐&플라스틱’과 ‘스토리지’를 각각 오픈한 바 있다. 지상에 위치한 ‘바이닐&플라스틱’에서는 비틀스, 아바 등 각 시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의 약 4000종(9000장) 바이닐(LP)과 8000종(1만6000장)의 CD를 접할 수 있

다. 지하 스토리지에서는 국내·외 실험적인 시각예술 프로젝트를 감상할 수 있다. 이들 공간은 현대카드 회원과 동반 2인까지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신한카드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메세나폴리스에 복합문화공간 ‘판스퀘어’를 개관한 것. 420여석 규모의 중국장 ‘라이브홀’과 300명 규모의 복합공간 ‘드림홀’로 구성됐다. 라이브홀은 콘서트·뮤지컬·연극 등의 콘텐츠로, 드림홀은 전시·체험전 등

으로 운영된다. ‘판스퀘어’ 외에도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OGV신한카드아트홀’을 운영하고 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삼성카드도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블루스퀘어와 네이밍 스폰서십을 맺고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을 운영 중이다. 카드사들이 공간 마케팅을 펼치는 이유는 잠재적 고객들이 봄비는 장소에 브랜드 노출면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감성적인 혜택까지 고려했다는

정정욱 기자 jiaj@donga.com

현대캐피탈 ‘운송관리 시스템’ 무료

현대캐피탈은 ‘운송관리 시스템’을 무료 공개했다. 스마트폰을 통해 화물차 관제서비스 및 자동배차 최적화 기능이 가능하다. 현대캐피탈 고객이 아니어도 화물차를 사용하는 법인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현대캐피탈 운송관리 시스템 홈페이지(trans port.hyundaicapital.com)를 참조하면 된다. 현대캐피탈 측은 “화주 및 운송사, 화물차량 운전자 등 관련 영세사업자의 운송관리 부담을 줄이고 운행 효율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롯데카드 ‘블록체인 지문인증 서비스’

롯데카드는 ‘블록체인 기반의 지문인증 서비스’를 앱에 도입했다. 블록체인은 고객의 거래 정보를 중앙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네트워크의 여러 컴퓨터에 분산해 저장하는 기술이다. 거래 참여자가 장부를 분산해 보유하고, 참여자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거래가 성립돼 사실상 해킹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현존하는 가장 안전한 보안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편집 | 정용문 기자 sadzoo@donga.com